

대우건설인

DAEWOO E&C MAGAZINE
2019 9 + 10

BUILD
TOGETHER



www.daewooenc.com



표지 컬러링 이벤트

지난 7+8월호 컬러링 이벤트 당선작을 공개합니다.
개성을 담아 다시 태어난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를 함께 감상해볼까요?
이번 9+10월호 표지의 주인공은 하남 테크노밸리U1센터입니다.
63빌딩의 1.6배에 이르는 웅장한 지식산업센터랍니다.
표지에 나만의 색을 입혀 컬러링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IT운영팀 최완식 차장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현장 김병기 대리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 현장 이지성 과장
신사업개발팀 강문영 차장	카타르E-RING도로 현장 서현교 차장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현장 황원용 과장
세무팀 정해성 대리	토목환경사업팀 권혁준 차장	연구기획팀 이영호 책임연구원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
컬러링한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
컬러링한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컬러링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DAEWOO E&C MAGAZINE
2019 9 + 10

대우건설인



2



28



18



44



50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사보 편집실)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래픽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진솔
인쇄 금강인쇄

2	스페셜 인터뷰 동기라는 이름으로
6	테마 연결이 주는 시너지
8	테마 story 미래의 연결 키워드
12	테마 poll 지금 우리의 연결력은?
16	테마 talk 연결력 높이는 방법
18	현장에서 찾은 지혜 공장과 상가를 이어낸 '리틀 포레스트' 하남 테크노밸리U1센터
24	트렌드 인사이트 지반이 단단해야 건물이 바로 선다 고품질급속지반고결공법
28	직장의 神 오늘도 찰칵! 현장사진 촬영법
30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부 아주 특별한 러브스토리
32	글로벌 TMI 알제리 TMI
34	티타임 도시 여행 건축으로 보다, 신라를 읽다
38	출근길 인문학 손오공이 들려주는 마음 안 맞는 동료와 백지장 맞드는 법
40	취미 레슨 요즘 뜨는 운동법
	대우건설인 +
42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6기
44	대대홍 3라운드 집배원 쉼터 환경개선 활동
46	대대홍이 돌아왔다 10주년 홈커밍데이
48	여름방학에는 대우건설과 함께
52	대우건설 뉴스 2019년 9+10월 대우건설 뉴스
56	독자 편지

동기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첫 출발선에서
결의를 다지며 함께 성장해온
나의 동기. 각자의 업무와
근무지는 달라질지라도 동기라는
이름은 우리를 더욱 각별하고
춤춤하게 연결해낸다.
연결의 힘을 되새겨 보기 위해
과거로 시작해 현재를 지나,
미래를 꽃피워낼
동기 세 쌍을 만났다.



홍보팀
이성협 과장



주택건축기획팀
한영호 차장



플랜트연구팀
김은혜 사원



창원시
교방성호교원지구
주택재개발 현장
강현석 과장



토건설계팀
김상집 사원



도시정비사업2팀
이상훈 과장

WE ARE CONNECTED

스페셜 인터뷰

서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열정맨.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주도할 줄 안다. 혼자 즐기는 취미도
많아서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음, 의리 여장부(웃음). 신입사원
연수에서 김은혜 사원이 나와 같은 조
조장이었다. 먼저 일어나 우리를 때려
깨우며 이끄는 모습이 참 든든했다.
아직까지도 동기를 참 잘 챙긴다.
신입사원 연수의 인연이 생각보다
깊게 이어지더라(웃음). 나도 김상집
사원을 만나면 처음 회사에 입사했던
때가 떠오르고는 한다.

동기들과는 자주 만나는지?

월급날이면 김상집 사원을 포함한
동기 몇 명과 모여 점심을 먹었다.
월급 기념 특별식으로! 가장 기분 좋은
날에 만나는 이들이어서 그런지
더 각별해진 것 같다.
8월 말에 결혼했다. 청첩장을 핑계로
동기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까지 함께해
더욱 반가웠다.

동기가 있어 든든했던 순간이 있다면?

아직 회사생활로 웃고 우는 일이
많은데, 누구보다도 사정을 깊게 아는
이들이니 큰 위안이 된다. 내 푸념을
들어주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회사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존재들이다.

동기들이 없었다면 회사 적응이
어려웠을 것이다.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함께 이겨낸 전우애랄까.
고민이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동기를
찾는다. 동기들은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내 편을 들어준다(웃음).

나에게 입사동기란?

어리숙하고 엉뚱한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와 '왜 나는
안 되지'라는 자극을 동시에 준다.
건물 내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동기들의 업무 활약을 건너 들을 때
반갑고 뿌듯한 마음이 크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사람들.
각자 결혼한 뒤에도 가족끼리 그
인연이 이어졌으면 한다.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함께 나누고 싶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결혼 축하한다. 동기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김은혜 사원이 본사에서 근무하다
올해 5월에 수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렀으면 한다. 우리가 수원으로
가겠다. 김 사원에게는 동기들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주길.

16

사번

플랜트연구팀 김은혜 사원
토건설계팀 김상집 사원



서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음도 한심한 사람. ‘도’가 포인트다.
항상 웃음을 주는 13년 지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해온 동기다.

둘 사이에 얹힌 추억은?

신입사원 면접 때 처음 만났다.
이름의 초성이 같아서인지 신입사원
교육에서도 룸메이트였고,
교육 때마다 옆자리 짝꿍이었다.
내가 해외근무 후 국내로 복귀할 때도
팀별 업무와 정보 등을 알려주어
큰 도움을 받았다.

신입사원 면접 볼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상훈 과장의
주도로 면접관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할지 연습했다. 웃긴 상황을
연출해서 덕분에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작년까지는 도시정비사업팀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다.

나에게 입사 동기란?

동기가 없었다면 참 외로웠을 것이다.
업무 이야기는 물론 사적인 고민까지
그 누구보다 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직급과 직책을 떠나 언제나
든든한 친구들이다.
회사에서 가장 든든한 내 ‘뺑’들.
신입사원 때는 단순 술친구였던
동기들이 지금은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됐다. 업무 협의를
할 때도 동기들과는 더욱 진솔해진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주 만나는 사이니 오글거리는
말은 하지 않겠다(웃음). 이성협 과장이
8년 동안 도시정비사업팀에 있다
홍보팀으로 옮겨갔다.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이상훈 과장은 동기이자,
두 살 많은 형이다. 평소에는 친구
같고 때로는 든든한 형처럼 많은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투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훈 과장이
최근 강남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나도 꼭 가고 싶다, 강남.
기다리고 있겠다. 동네 맥주 한잔
하자.

07사번 동기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더 자주 보고 싶다. 동기 카톡방이나
연말 동기모임에서 소식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항상 아쉽다.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면 어떨까 싶다.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07사번 모두가 자랑스롭다.
다만 사내교육을 통해 동기들이
회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열린다면 업무능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모든 동기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서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똘 고민해(웃음), 그냥 인생의 친구다.

둘 사이에 얹힌 추억은?

강현석 과장이 결혼하던 시기가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던 때와 맞물렸었다.
소속이 없던 때라, 내가 대신 사내
게시판에 결혼 소식을 올렸던 게
생각난다.
동기 중에 공무 업무로 처음 만난 것이
한영호 차장이다. 용어부터 시스템이
달라 곤란하던 중에 한 차장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전화로 참 많이도
괴롭혔는데, 이젠 다 추억이 됐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나에게
연락 주시라. 한 차장처럼 정성을 다해
모두 가르쳐주고 싶다.

동기가 있어 든든했던 순간이 있다면?

신입사원 시절의 기억은 평생 가는 것
같다. 입사 후 첫 현장에서
운 좋게 동기 한 명과 같이 근무하게
됐는데,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니
근무할 때도 도움이 되었다.
첫 근무지에 동기와 함께 가지
않았더라면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다.
입사한 지가 오래된 만큼 삶의
여러 부분을 함께 공유해온 듯하다.
신입사원 교육이 끝날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기들이
서울에서 거창까지 찾아와주었던
일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나에게 입사 동기란?

동기라 쓰고 친구라 읽는 이들.
회사 내에서의 희로애락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항상 그리운 사람들. 나는 계속
현장에서만 근무해왔다. 이번 현장이
아홉 번째인데, 현장에서는
동기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나도 동기가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04사번 동기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오늘 동기 몇 명이 모이기로 했다.
해외현장이나 지방에서
근무하는 동기가 한국이나 서울에
오면 꼭 만나려고 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꼭 만나자.
자주 연락하겠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07

사번

도시정비사업2팀 이상훈 과장
홍보팀 이성협 과장



04

사번

주택건축기획팀 한영호 차장
창원시교방성호교원지구주택재개발 현장 강현석 과장

연결이 주는 시너지

connection

8	테마 story 미래의 연결 키워드
12	테마 poll 지금 우리의 연결력은?
16	테마 talk 연결력을 높이는 방법

‘눈 뿔다 감으니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는 말은 나이를 불문하고 전 세대를 관통하는 문장이 됐다. 수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빠른 물살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많은 미래학자들은 “더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으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우리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지식과 경험의 기회는 물론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똑똑한 개인보다 잘나가는 단독 사업보다 사람과 사람, 사업과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더 큰 결과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우건설은 IoT, LNG 밸류체인 확장 등을 통해 신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연결이 필요하다. 기업을 넘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연결과 협력 그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build together
#connection

미래의 연결 키워드

연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다.
이 4차 산업혁명엔 일상은 물론 여러 산업
분야에 전방위로 적용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촘촘히 연결해낼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이 기술이 건설 산업에 어떻게 활용될지
알아본다.

참고도서. <4차 산업 혁명 건설 산업의 변화와 미래>
(주택건축사업본부 김선근 상무 지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I)

사용자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작업을 지시할 때 언어는 물론 맥락까지 파악하여
반응하도록 하는 기술.

◆ 건설업은 지금 ◆

현재는 주로 건설 로봇으로 활용 중이다. 벽돌 쌓기,
고소 작업, 바닷속 깊은 구조물 건설, 해양 플랜트 구축,
해저 케이블 설치, 파이프라인 매설 등에 활용되는
수중 로봇 등으로 쓰인다.

Drone

드론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 유도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의 정보수집, 사진촬영,
택배, 실종자 위치파악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건설업은 지금 ◆

경량 건축자재를 운송하거나 현장조사를 하는 데 쓰인다.
실시간 현장 감시 및 경고시스템 구축에도 유용하다.
대우건설에서는 드론 카메라로 현장촬영 및 안전감시 뿐만
아니라 측량 및 설계, 공사비 산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Big Data

빅데이터

SNS상에서 오가는 무수한 잡담들, 유튜브 영상이나 음원 파일
등 계량화 및 수치화가 어려운 정보들을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 건설업은 지금 ◆

대우건설은 '원격검침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계, 전기분야의 최적 설계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 원가를
절감하는 데 활용 중이다. 고객 맞춤형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한 건물 및 주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IoT)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객체(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에
센서를 부착하여 인터넷으로 연결한 뒤 소통을 제공하는
지능형 인프라 시스템.

◆ 건설업은 지금 ◆

대우건설은 푸르지오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지진감지 정보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단지 내 스마트 지진계를 설치하여 지진이 발생할 경우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지진 상황이 전달된다.
세대 내 가스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자동 차단하고
각 실의 조명을 점등하여 피난을 돕는다.
기존의 스마트 '홈' 개념을 아파트 단지로 확장해 편리함과
연결성을 높인 시스템도 있다. 대우건설이 더욱 새로워진
'뉴(new) 푸르지오'에 구현해낼 '스마트 푸르지오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내 차의 주차 위치를 알 수 있고, 인근
병원의 진료 정보, 입주민투표 등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서 동물, 공룡 등 증강현실 애니메이션을 체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AR) 기술도 만나볼 수 있다. 개별 구매하는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 가전 역시 모바일 앱 내에서
제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보안시스템 5ZSS를 업그레이드해
지능형 CCTV와 세대현관 지문인식 프로그램,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 등을 추가 도입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염두에 뒀
다른 기업과의 협업도 예정되어 있다. 공유차량,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이다.
사물과 사물의 연결이 집안을 넘어 외부까지 아우르는 데다,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안전까지 꼼꼼히 관리한다.
일상과 기술을 연결해 '주거'의 개념을 넘어 '삶'으로
확장시켜나갈 푸르지오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일상 속에는 이미 연결의 힘을 극대화한
결과물이 가득하다. '유튜브'와 '아이폰'으로 보는
놀라운 연결 이야기.

사람과 사람의 연결

800만 구독자를 가진 미셸 판은 뷰티 유튜버의
원조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베트남계 미국인인
그녀는 18살이 되던 해인 2008년, 메이크업
튜토리얼과 스타일링 영상을 찍어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금발과 푸른 눈의 '전형적 미인'이
아닌 미셸은 오히려 자신의 송곳니와 보철을
당당히 드러냈고, 할인판매점에서 산 값싼
화장품을 이용하는 모습은 또래 구독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갔다.
미셸이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 돋보인 점은
바로 구독자와의 소통이다.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은 것.
그녀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을 추려 곧바로
영상으로 화답했고 커뮤니티 회원수와 구독자수는
점점 늘었다. "구독자들은 제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정이 저를 매일 훈련하게
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어요."
그녀는 이후 10년이 넘도록 유튜브 스타로 사랑
받으며 상호역동성의 좋은 예로 손꼽히고 있다.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연결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그저 전화의 기능만
할 뿐 불편한 점 투성이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휴대전화를 만들어보자. 우리는 아이팟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매킨토시용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휴대전화와 아이팟의 터치스크린 그리고 카메라,
무선인터넷 기능을 통합한 아이폰이 출시된
배경이다. 창의성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는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을 모아 혁신이란
이름으로 포장해내는 연결의 귀재다.
그는 창의성에 대해 '기존의 것들을 그저 연결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창의적인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나온
것을 잘 묶어 연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거나 경험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한
것뿐이죠." 결보기에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의
연결점을 찾고, 유사점을 파악해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연결론'이자 '창의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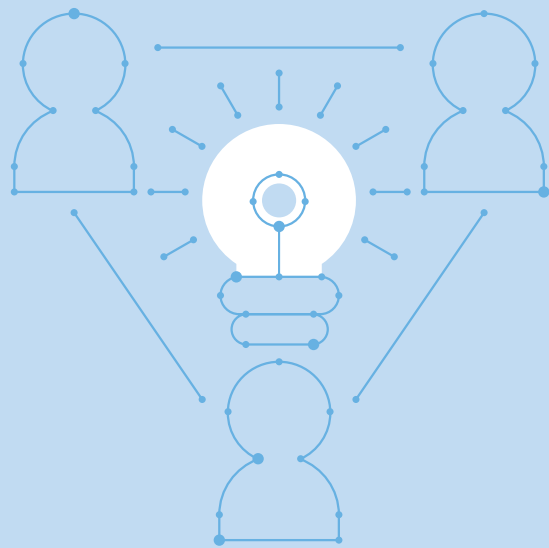
Virtual Reality / Augmented Reality / Mixed Reality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실제 존재하는 현실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증강현실’, 시각장치를 장착하고 현실과 같은 가상을 유사하게 체험하는 기술을 ‘가상현실’이라 말한다. ‘혼합현실’은 홀로그램을 이용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정보를 결합하여 두 세계를 융합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 건설업은 지금 ◆

증강현실을 이용해 설계 도면을 실제 건물이 들어설 땅에 배치해 봄으로써 설계상의 오류를 사전 검토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을 통해 4차원으로 만든 도면 공간에 사용자가 들어가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대우건설은 스마트폰에 ‘AR 가든’ 앱을 설치해 단지 내 정원에 있는 초목이나 벤치 등 사물에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도록 제공하고 있다. ‘AR 포토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지 내 놀이터 곳곳의 동물, 로봇, 공룡 등 화면 속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AR 조경 안내 서비스’는 식물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모습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조형물을 만든 작가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uto-nomous Car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GPS 센서 등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

◆ 건설업은 지금 ◆

교통 시스템의 변화로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다른 도로, 교량, 신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주거시설이나 사무실 건물에서도 주차장은 사라지고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차량 허브 개념이 도입될 것이다. 자동차와 도로를 설계할 때는 인지 반응시간과 헤드웨이(앞 차와의 간격)를 반영하여 계획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실시될 경우, 도로의 규모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교통흐름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아파트나 단지의 빌딩에 있는 주차장의 개념 및 면적 크기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주차장 내부는 자율 주행자동차를 위한 전기차 충전설비와 IT를 이용해 최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차장 공간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도로 위 엔터테인먼트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설치되어 거리와 시간에 대한 물리적 제약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회의 형태가 변화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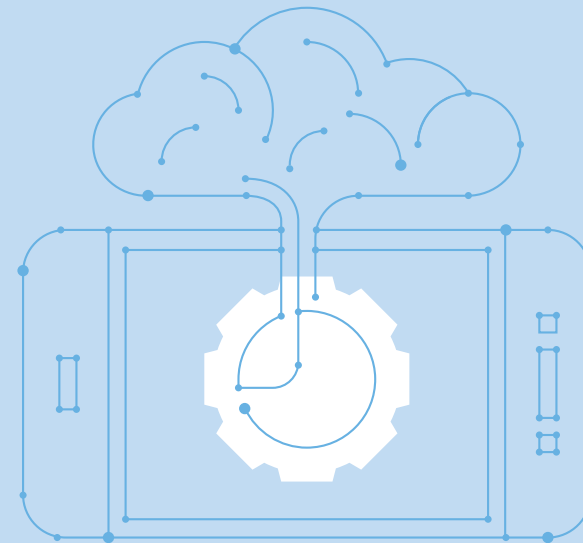
3D Printer

3D프린터

X축과 Y축은 물론 상하축인 Z축까지 운동을 더하여 입력된 3D 도면을 바탕으로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프린터.

◆ 건설업은 지금 ◆

3D 프린터로 건물을 시공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프린팅이 가능해 건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물류비용 절감과 건축 폐기물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한 3D 프린팅 전문업체는 두바이 사무실을 기존 대비 기간을 50~70%, 인건비를 50~80% 절감해 건설하기도 했다.



Daewoo Smart Construction System

현장을 종합관리하는 대우건설의 통합 플랫폼 DSC 시스템

스마트 컨스트럭션(Smart Construction)이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기술(AI)을 적용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건설 전반을 개선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우건설에서는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일종으로, DSC(Daewoo Smart Construction)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시공관리 자동화 통합 플랫폼’으로, 사물인터넷, 드론, 모바일, VR & AR 등 모든 첨단기술이 적용된다. 사물인터넷 및 3D 설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해 작업자가 스마트 태그(Smart Tag)를 착용하고 작업함으로써 지능형 CCTV를 통해 투입 인원의 작업 위치를 파악한다. 위험지역의 출입을 경고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감지하여 관련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와 긴급사상 발생 시에는 호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업자가 안전밴드를 착용하고 작업함으로써 가스누출 등을 모니터링해주고, 각종 센서와 드론을 통해 현장안전, 품질 및 공정관리에 이용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지금 우리의 연결력은?

강철의 심장을 가진 아이언맨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 이때 필요한 것은 힘이 더욱 세거나, 또 다른 지략을 가진 동료다. 우리의 회사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대우건설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의 연결력과 앞으로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알아본다.



설문 응답자의 약 80%가 '담당업무 이외의 다른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협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사업이 고도화되며 하나의 업무를 처리할 때도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해결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과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더 자주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업무의 질을
높이고 싶을 때

11%

선택을 지지하고 동기부여해줄
'내 편'이 필요할 때

6%

색다른 관점이나
창의성이 필요할 때

6%

Q1

직장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담당업무 이외의
다른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77%

Q2

협력(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

20%

나의 부족한 점을
감추려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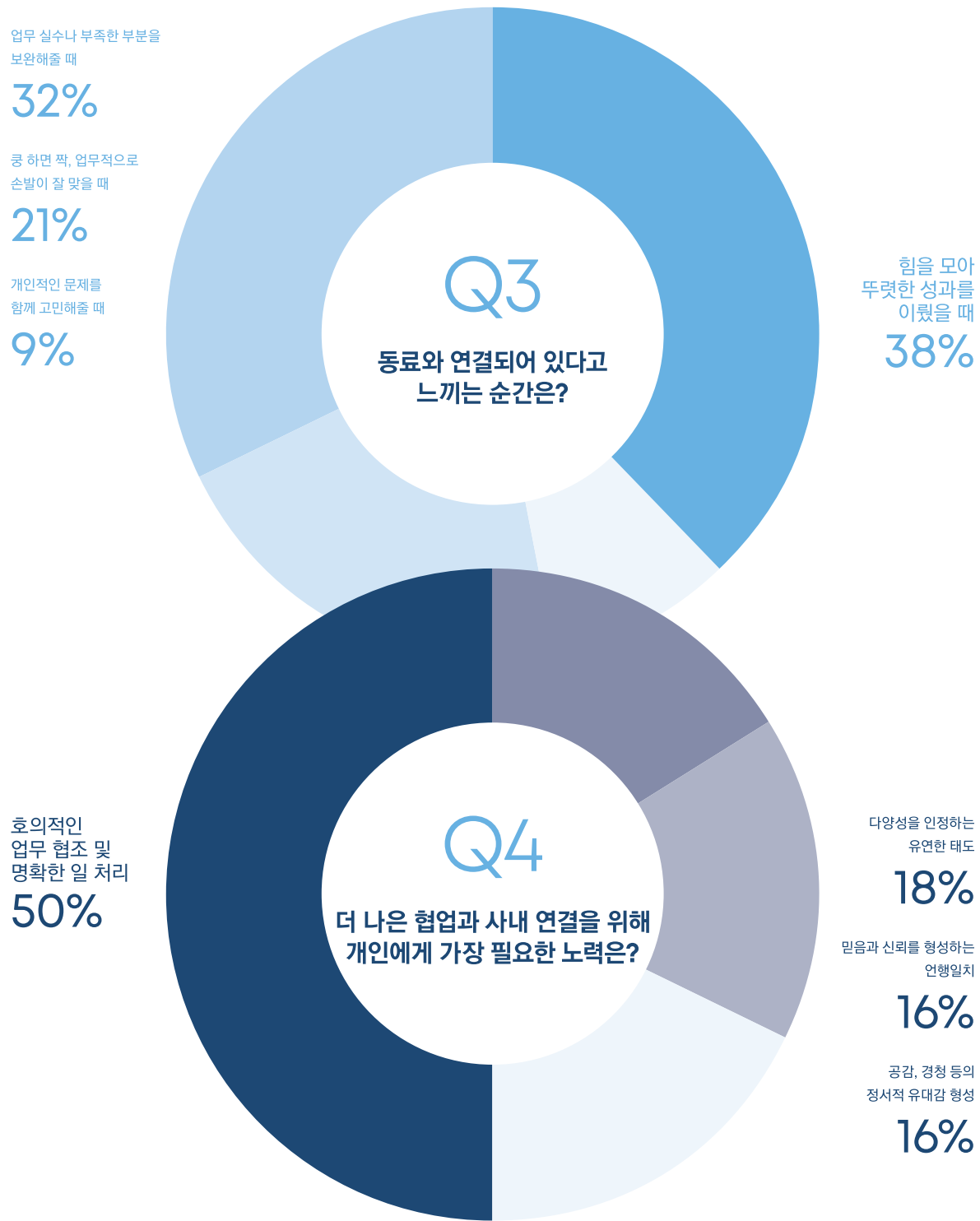
9%

다른 부서와
힘을 겨루려는 태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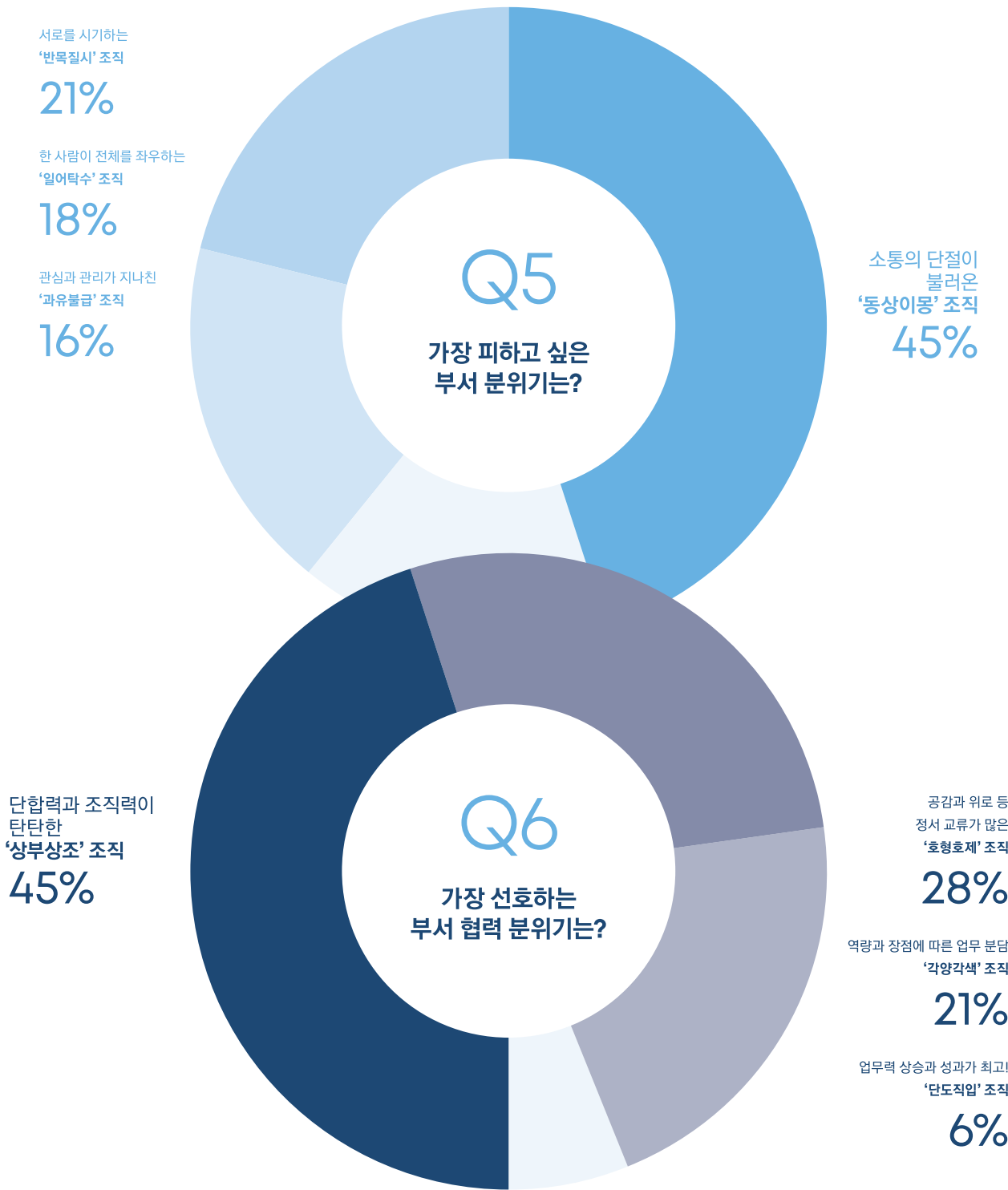
회사는 일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지만,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 대우건설인의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 1위는 '동료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역지사지'다. 협업을 요청할 때는 상대방이 기존 업무량 등으로 곤욕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고, 협업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우건설인들은 언제 동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까?
우리의 가장 큰 공동 목표가 '업무성과'인 만큼 업무에 관련된 응답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힘을 모아 성과를 이루었을 때'와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때'다.
'업무적으로 손발이 잘 맞을 때'와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을 함께 고민해줄 때'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더 나은 협업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호의적인 업무 협조와 명확한 일 처리'가 꼽혔다.
더욱 현명한 협업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프로젝트의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세워 공유하고,
분량과 일정은 구체적으로 꾸려야 하며, 팀원의 역할을 세분화해 지시해야 한다.
아랫사람의 경우, 독단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틈틈이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가장 피하고 싶은 조직으로는 '동상이몽' 조직이 선정됐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정반대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혼다.
성향과 경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는 말투와 표정도 신경 써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 말(메시지)을 통해 단 7%만을 인식하고,
몸짓과 목소리 등에서 나머지 93%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선호하는 조직 분위기로는 단합력과 조직력이 탄탄한 '상부상조' 조직이 꼽혔다.
그 뒤를 이은 것은 공감과 위로 등 정서 교류가 오가는 '호형호제' 조직이다. 업무력 상승과 성과를 내세우는 '단도직입' 조직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다 나은 협력을 위해서는 단합력과 정서적 교류
즉, 상대에 대한 믿음은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연결력을 높이는 방법

연결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고 생각을 확장시킨다. 같은 꿈을 꾸고 더욱 큰 목표를 이뤄낼 대우건설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이 필요할까?

연결의 시작,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회사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조금씩 숨기기 마련이다. 순수한 자기표현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의 ‘틀린 퍼즐 조각’으로 비춰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주류의 기준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 정체성을 지우려 하는 ‘자기은폐’가 많은 집단은, 그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지닌 자질과 재능을 모두 얻을 수 없다. 회사 내 자기은폐를 타파하기 위해 캠페인을 열어 직원들 간의 연결을 이뤄낸 사례가 있다. 영국의 다국적기업 딜로이트다. 그들은 직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자기노출’에서 해답을 찾았다. 고위급 임원 50명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라는 제목의 단편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임원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위해 쏟고 있는 노력을 설파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질병과 가족, 부채 등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영상은 약 65,000명의 딜로이트 직원들에게 공유됐고, 이는 공감대와 함께 각자의 상황과 현재 모습을 이해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직원들은 동료들과 각자의 이야기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고, 조직의 생산성과 직업의 만족도 상승으로까지 이어졌다. 우리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공유할 때 타인과의 연결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다.

연결을 돕는 기술, ‘연결지능’

구성원들의 열린 마음 즉, 자기노출만큼이나 조직 내 연결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연결지능’이다. 연결지능이란 다양한 지식과 경험, 인적자원 등을 결합해 가치를 창출하고 난관을 벗어나는 재능을 말한다. 이것은 목표에 이르는 데까지 걸리는 속도 또는 추진력과 관련이 깊다. 과학의 발전과 미디어의 융합으로 얼마나 ‘지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더욱 빠르게,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제 자문회사 커텐셜의 CEO 에리카 다완과 비즈니스 전략가 니콜 조니는 사람 간의 연결을 빠르고, 깊이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뤄온 이들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의미 있는 사고를 일으키고 생각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사색가’, 조직 안에서 공동체의 영향력을 알고 사람들을 설득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조력가’, 일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적절한 사람을 동원할 줄 아는 ‘관계실행자’다. 에리카와 니콜은 이 세 유형의 인물이 가진 능력의 공통점을 총 다섯 가지(5C)로 정리했다. 호기심, 결합, 공동체, 용기, 발화다. 5C를 통해 현재의 내 강점과 약점을 확인해보고, 업무력 향상과 목표 성취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기를 추천한다. 이 다섯 가지 능력을 모두 갖고 있지 않아도 좋다.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우리에게는 연결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평소 가까워지고 싶었던 동료와 커피 한 잔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혼자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줄 것이다.



현장에서 찾은 지혜

공장과 상가를 이어낸 ‘리틀 포레스트’ 하남 테크노밸리U1센터

2019년 9월, 63빌딩의 1.6배에 이르는 거대
건물이 하남시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공장과 상가 그리고 휴식공간을 멋스럽게
엮어낸 지식산업센터다.

30 Month
공사 기간
2017. 2 — 2019. 8

499.37%
용적률

32,578 m²
대지 면적

270,405 m²
연면적



곳곳에 자리한 정원과
야외 쉼터가 눈과 마음을
씻어줄 '리틀 포레스트'
역할을 한다.



공장과 상가 사이 고개를 내민 초록 숲

연면적 270,405㎡(82,000평), 4개 동, 지하 2층과 지상 15층으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 하남 테크노밸리U1센터는 완공과 함께 하남시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이 됐다. 하남을 찾는 이들의 시선이 꼭 한번쯤 머물다 갈 곳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상일IC가 인접해 있고, 하남의 상징이 된 스타필드 역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니 말이다. 건물의 엘리베이터 개수만 해도 34개. 약 2,400여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거대한 지식산업센터지만, 회색빛이 뻥뻥한 '아파트형 공장'을 상상한다면 오산이다.

대우건설이 이번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녹지공간 확보이기 때문이다. 현장 공사를 책임진 이효근 소장이 설명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공간의 효율성만큼 쾌적한 분위기가 중요하죠. 특히 여러 분야의 산업군이 입주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을 가장 경계했어요.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녹지공간과 잘 꾸러진 조경이 '열린 공간'이라는 물리적, 심리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는 중앙광장이 대표적인 예다. 분수, 색색의 조형물, 오픈 스테이지로 꾸러진 야외정원으로, 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스트리트형 공장 및 상업시설'이라는 면모를 잘 살렸다. 3층에 꾸러진 옥외쉼터, 13층에 위치한 테마가든,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옥상정원 역시 이용자들의 눈과 마음을 씻어줄 '리틀 포레스트' 역할을 한다. 일부 사무공간에는 테라스형 휴게공간을 만들어 업무 중에도 틈틈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했다.



더 넓고 길게, 기술로 사람과 물류를 잇다

1층부터 3층은 상가 및 근린시설, 3층부터 10층까지는 공장, 11층부터 15층까지는 사무실로 꾸러진다. 지하에는 식당이, 층 곳곳에는 조경시설이 있으니 굳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업무는 물론 쇼핑과 휴식까지 가능한 '복합센터'다. 다만 일부 공간이 공장으로 쓰이는 만큼, 물류를 싣고 나르는 데 필요한 조건을 더욱 세심하게 구현해냈다. 물류 공장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편의성과 속도. 이를 위해 통로는 가능한 넓게, 층고는 최대한 높게 설계했다. 건물 1층부터 해당 호실까지 인력으로 물건을 나르느라 소모되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함이다. 최대 6m의 광폭도로로 대형차량의 양방향 통행과 보행이 가능하고, 5.4m 높이의 층고 덕에 지게차 등의 길다란 중장비 사용이 수월하다. '드라이브인 시스템'도 물류운반에 최적화된 시설 중 하나다. 자동차가 10층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이어낸 것으로, 하남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중 유일무이한 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각 호실 출입문 앞에는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싣고 온 물류를 문 앞까지 옮길 수 있다. 남양주, 서울, 성남, 광주, 구리와 접하고 있는 데다 올림픽대로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용이하며 교통의 중심지라 불리는 하남이니, 지리적 조건과 시스템이 만나 일으키는 시너지를 기대해볼 만하다.

뿐만 아니다. 화물을 나르는 하역데크는 물류사들의 의견을 수집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높이로 구현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최대 5톤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 효율성과 포용성을 두루 갖춘 설계를 현실로 이뤄낸 것이다. 공사 완료 후 진행된 준공검사에서 건축사들의 인정을 받았던 기억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다. 건축팀 이우용 대리가 그때의 기억을 회상했다.

“건축가 20명이 와 준공검사를 실시했어요. 보통 건물은 5명 정도가 일반적이는데, 워낙 면적이 넓으니 하남시에 배당된 건축가가 전부 모여 건물을 살펴보게 된 거죠. 층별로 나눠 꼼꼼히 현장검증을 하더니 '신경 쓸 부분이 많았을 텐데 고생이 참 많으셨다. 덕분에 멋진 공간이 탄생했다'고 말하더군요. 입주자들에게도 저희의 노력과 진심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최대 6m의 광폭도로로
대형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며 10층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물류 운반이
더욱 편리하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으로 연결된 이들

약 30명의 직원이 30개월간 고군분투하며 쌓아 올린 센터는 그들의 지난 고민과 열정이 녹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효근 소장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을 내 일처럼 일한 직원들 덕을 많이 봤죠”라며 공을 돌렸다. 조금 독특한 것은 직원들 역시 입을 모아 ‘팀워크와 유대감을 진하게 나눈 현장’이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효근 소장이 풀어놓는 조직론을 들으니 이 현장이 유독 화기애애한 이유를 알 것도 같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일체감이에요. 그런데 연령도 경험도 다양각색인 직원들이 마음을 툭 터놓기가 어디 쉬운가요. 저는 사람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교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간이 일터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따뜻한 미소와 공감을 꾸준히 나누다 보면 신뢰와 존중이 쌓여요. 직원들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어 두터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지난 7월에는 다 함께 양평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캠프파이어 불 앞에서 발그레한 얼굴로 진심을 털어놓던 표정과 아이처럼 웃으며 즐겁게 춤추던 모습은 가슴속에 꼭 간직할 추억이 되었다고. 이번 현장이 첫 근무지인 안전팀 정지원 사원 역시 직원들과의 팀워크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2017년 2월에 입사하자마자 오게 됐어요. 회사라는 조직도 낯선데 더욱 어색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다니, 걱정이 많았죠(웃음).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이 있더라’고요. 팀 선배들은 물론 현장 분들과 가까워지며 건설업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게 됐어요.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점도 좋았어요.”

“균형이 잘 맞춰진 현장이었어요.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기보다는 서로의 손발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줄 아는 이들을 만나 끈끈한 30개월을 보낼 수 있었죠”라는 공사팀 손익 과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사람은 머문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 놓는다고 했던가. 일상의 업(業)과 자연 그리고 효율과 여유가 함께 공존하는 하남 테크노밸리U1센터. 함께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만든 이 공간에서 여러 산업의 새로운 연결 시너지가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people



“저는 사람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교감이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미소와 공감을 꾸준히 나누다 보면 신뢰와 존중이 쌓여요.”

이효근 소장



“사람과 물류 그리고 자연을 중심에 두려고 했습니다. 입주자들에게도 저희의 노력과 진심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건축팀
이우용 대리



지반이
단단해야
건물이
바로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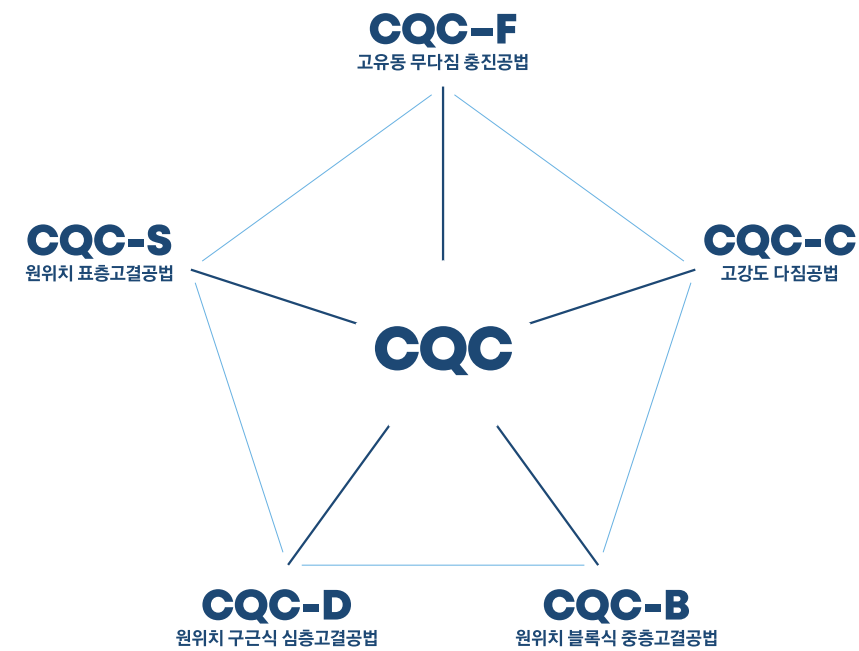
CQC

트렌드 인사이드

고품질급속지반고결공법

시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다.
구조물을 세우기 전 지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 구조물의
바탕, 즉 지반이 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반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고민의 답이 되어줄 기술은 바로
고품질급속지반고결공법(CQC : Controlled
Quick&Quality ground Cementation)이다.
글. 태우건설 기술연구원

Controlled Quick & Quality ground Cementation



CQC공법은 연약지반에 친환경
고화재(화학반응을 통해 흙입자를 고결시키는 결합재)를
섞어 연약한 지반의 강도를 풍화암 수준까지
높이는 공법을 말한다.
CQC공법을 적용할 경우 포졸란 반응(고결
이후 시간이 경과되어 흙 자체의 광물과 고화재가 결합하는
반응)에 의해 강도가 증가되어 장기 안정성에
탁월하다.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지반강도를 높일 수 있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다. 포졸란 반응에 의해 굳은
재료는 화학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오염물이 포함된
토양에서도 오염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불량토사를 재활용해
양질의 재료로 탈바꿈시키기 때문에 토사
폐기 및 양질토의 반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지반함몰, 침하, 붕괴 등 지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지반대책공법이자, 각종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공법이며, 지반의
액상화를 방지하는 등 지진에도 유리한
공법이기도 하다.
CQC공법은 CQC-F, CQC-C, CQC-B,
CQC-D, CQC-S 등 현장과 지반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세부공법을 알아보자.





CQC-Fill

고유동 무다짐 충전공법

작업공간이 협소하거나 함수비가 높아 다짐이 불가할 때, 세립질이 많아 폐기가 불가피한 현장 불량토가 발생할 때, 토양의 품질확보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발생한 불량토를 굴착 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친환경 고화재와 물을 혼합해 고유동화토를 제조한다. 이후 이 고유동화토를 소요 위치에 부어 굳히면, 양질토 다짐강도 대비 2~5배의 고강도 지반이 된다. 필요한 장비로는 고화재 믹싱플랜트, 유동화토 제조플랜트, 운송장치가 있다. 점토부터 자갈 섞인 모래까지 여러 토양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시설 뒷채움, 옹벽배면채움, 지하공동채움, 지중매설관채움, 연약지반 표층처리 등에 사용된다.



CQC-Deep

원위치 구근식 심층고결공법

CQC-D공법은 CQC-B공법과 함께 원위치 교반공법에 해당한다. 심도 15m 이상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지반 내에 친환경 고화재와 물을 주입하면서 룯드 회전을 통해 흙과 교반하여 원형 단면의 구근을 형성한다. 점성지반의 경우 흙이 교반날에 붙어 교반의 품질이 떨어지고 과도한 슬라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반날 사이에 역회전 역할을 하는 날을 부착하고, 룯드의 회전속도를 증가시켜 교반의 품질향상과 슬라임 발생량 억제를 실현했다. 개량 용도에 따라 1축, 2축, 3축, 4축 등 다양한 형태로 시공이 가능하다. 특히 1축의 경우 굴삭기 몸체에 슬라이딩방식 리더가 결합된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 교반이 진행됨에 따라 리더의 일부가 접히며 길이가 짧아져 전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다. 또한 장비의 중량이 가볍고 이동성도 좋다. 고화재 믹싱플랜트와 전용 교반기가 사용되고, 대규모 연약지반 개량, 성토 및 도로 하부개량, 측방유동 방지, 주열식 차수벽체 등에 사용된다.



CQC-Surface

원위치 표층고결공법

굴삭기에 교반기를 장착해 물과 고화재를 주입하며 연약지반을 교반하는 공법이다. 이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다수의 회전식 룯드와 이 룯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회전시키는 유닛을 적용한 교반기를 사용한다. 보통 연약지반에는 장비 접근이 어려운데 이 공법을 이용하면 작업로 확보 및 중층과 심층 개량체 사이에 발생하는 부등침하를 막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안정적인 지반으로 개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CQC-B공법 및 CQC-D공법과 병행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보다 작은 규모의 굴삭기를 사용하므로 시공성이 뛰어나고 교반의 품질이 기존 쓰일시멘트 등에 비해 탁월하다. 작업을 위해 고화재 믹싱플랜트와 표층 교반장치, 굴삭기가 필요하며, 주로 심도 2~3m 이내에서 장비 접지압확보 및 부등침하방지, 표층개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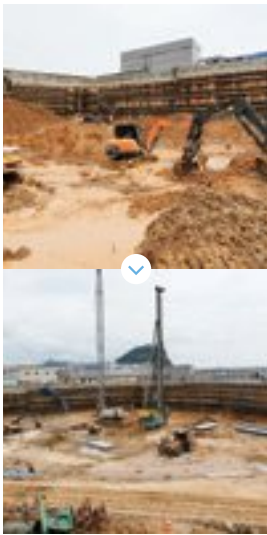


CQC-Compaction

고강도 다짐공법

지반의 함수비(토양이 물을 함유하고 있는 비율)가 높고 실트, 점토 등 흡입자의 크기가 작은 세립분이 많아 지반의 다짐강도 및 지지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CQC-C공법이 사용된다. 토사의 탈수 및 경화를 촉진하는 고화재를 건조상태로 투입해 교반하는 공법으로서, 시공위치에 포설한 뒤 몇 차례의 전압다짐만으로 일반 다짐강도 대비 2배 이상의 고강도 지반을 조성할 수 있다. CQC-F공법과는 달리 유동성이 없고 고결속도가 매우 빨라 시공 후 다음날 바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기존 쓰일시멘트를 대체하여 적용되며, 점성토 지반 등에서는 CQC-S공법과 병행해 시공속도 및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장비는 교반장비, 운반장비, 다짐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매우 단출하다. 구조물 슬래브 하부 강화지반 조성, 주차장, 흙길, 성토층 마감, 도로하부 동상방지층 등에 적용되며, CQC-D공법이나 CQC-B공법과 조합하여 표층처리에 적용하면 부등침하 방지 및 장기 안정성에 더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반개량 방법 CQC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시공 전 — 함수비가 높아 다짐이 어려운 풍화토 지반. 지하수 유입으로 지반강도가 저하되어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시공 후 — CQC-C공법을 적용해 짧은 시간 내에 접지압을 확보했다. 파일형타장비의 진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및 원가절감을 이루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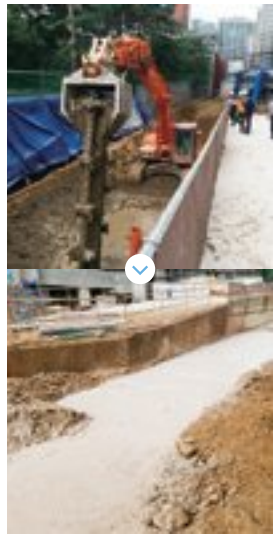


CQC-Block

원위치 블록식 중층고결공법

지반 내에 물과 친환경 고화재를 주입하면서 굴삭기에 장착하는 상하교반 방식의 교반기를 이용하여 흙과 혼합해 땅 속에 고강도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공법이다. 땅 속은 저마다 지층의 구성이 달라 동일한 고화재를 주입해 교반하더라도 상부와 하부의 개량체 강도가 차이 날 수 있다. 상하교반방식은 이러한 상부와 하부지반의 특성 차이에 의한 강도차이를 배제해 일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이러한 교반방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CQC-B공법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일반 굴삭기에 장착해 시공하므로 기동성이 좋고 슬라임이 발생하지 않는 등 기존의 육상 DCM 공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인 공법이다. 실제 개량심도는 대략 15m 이내로 국한되나 지반에 작용하는 하중이 대부분 표층에서 5~10m 심도에 집중되어 지반개량에 대한 효용성이 높으며, 깊은 심도의 연약지반에서 발생하는 잔류침하를 동시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시공심도가 깊은 CQC-D공법과 병행하면 좋다. 장비는 고화재 믹싱플랜트, 상하교반장치, 굴삭기를 사용하며, 대규모 매립지 개량, 성토하부개량, 구조물 기초, 폐기물 매립지반의 고형화 및 연약지반의 터파기 시 사면구배 상향을 위한 경사벽체 등에 사용된다.

지반개량 방법 CQC



서초 푸르지오 써밋

시공 전 — 연약지반에 시공되는 옹벽의 침하 방지 및 활동 방지가 필요했다. 당초의 마이크로파일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PHC 파일은 장비 진입이 불가능했다. 시공 후 — CQC-B공법을 적용해 협소한 구간에서의 옹벽하부지반을 개량해 안정성을 높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했다.

No. 3

2019 9 + 10

오늘도 찰칵!
현장사진 촬영법

공사의 진행과 그 변화를 기록하는 현장사진. 하지만 야외촬영의 경우 시간, 계절, 날씨에 영향을 받으며 현장 직원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카메라가 낯선 곳곳의 대우건설인을 위해 장경순 과장이 간단한 현장사진 촬영법 소개에 나섰다. 몇 가지만 신경 쓰면 더 좋은 사진을 마주할 수 있다.



장경순 과장이 알려주는 사진 촬영 노하우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 풀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장경순 과장
장경순 과장은 지난 5월 준공한 을지 트윈타워 공사 현장을 3년간 사진으로 기록한 경험이 있다. 제 모습을 갖춰가는 신사옥을 카메라에 담으며 뿌듯함을 느꼈고, 그 모습을 더욱 정확히 담기 위해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현재는 탕정지웰시티푸르지오1단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카메라 기본 용어 알아보기

- 1 역광—피사체 뒤에서 빛이 비치는 상태
- 2 순광—피사체가 전면으로 빛을 받는 상태
- 3 반역광—피사체의 옆으로 빛이 들어오는 상태
- 4 DSLR—디지털 방식의 SLR(Single Lens Reflex) 카메라
- 5 화각—촬영 가능한 피사체의 범위를 나타낸 각도

1

햇빛

햇빛은 실외 촬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촬영 조건이다. 왼쪽 사진처럼, 역광¹일 때는 렌즈로 빛이 직접 들어와 사진이 흐려지고는 한다. 오른쪽 사진의 경우 비록 흐린 날 촬영해 회색 구름이 유리창에 반사되었지만, 역광으로 인한 빛 번짐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순광²의 경우 정밀한 부분을 표현할 때 효과적이나 형태가 평면적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반역광³일 때에는 피사체의 입체감은 물론 표면 질감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직장의 신 TIP
건물의 실내를 촬영하는 경우, 빛이 자동으로 보정되는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흐린 날

맑은 날

2

계절

여름과 겨울에는 촬영 조건을 따로 구분해 촬영하는 것이 좋다. 같은 시간에 촬영하더라도 햇빛 위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겨울의 경우 낮은 태양고도로 인하여 그림자가 크게 생기므로 점심시간 전후에 촬영해야 그림자의 간섭이 가장 적다. 무엇보다, 현장사진을 촬영할 때는 DSLR⁴ 카메라를 추천한다.

겨울



여름



직장의 신 TIP
DSLR을 사용하면 비교적 자연 변화에 덜 구애 받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3

구도

사람의 눈과 화각이 가장 비슷하다는 표준렌즈(50mm)를 기준으로 하되,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가까이 보여주는 망원렌즈와 화각⁵이 더 넓어 가까이에서도 건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광각렌즈를 경우에 따라 장착한다. 다만 왼쪽의 사진처럼 좌우 끝부분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전혀 다른 형태의 건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조금 멀더라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사진 촬영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다.

가까운



적당한



직장의 신 TIP
광각렌즈를 사용하면 가까운 곳에서도 건물을 다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왜곡에 주의해야 한다.

4

보정

사진 촬영 후, 간단한 조작으로 수평과 수직,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역광 촬영 시 선명도와 채도를 조정하면 건물의 형태와 색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포토샵 보정법을 익혀 두는 것이 좋다. (상단 QR코드 속 영상 참고)

보정 전



보정 후



직장의 신 TIP
초점 역시 보정이 가능하다. 다만 흐린 날의 경우에는 수정이 어려우므로 사전 유의한다.

letter from ALGERIA

아주 특별한 부부 아주 특별한 러브스토리

대우건설 13사번 동기로 만나서 부부라는 특별한 연을 맺은 커플이 있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 각각 해외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연의 두 사람이다.
알제리 RDPP 현장에서 아내 박유진 대리가 나이지리아 INDORAMA FERTILIZER II 현장의 남편 김태훈 대리에게 보내온 아주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공개 편지로 안부를 전하려고 하니 정말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네. ^^; 여보, 잘 지내고 있지? 벌써 내가 알제리로 부임한 지 8개월, 당신이 나이지리아로 부임한 지도 5개월이 지나고 있어. 수많은 선배님들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떨어져 지내다 보니 이 시간이 체감상으로는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도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정감이 느껴져. 같은 본부 현장이라 심심치 않게 여보네 현장 소식도 들을 수도 있고.

나는 '현장 체질'이라는 말도 들으며 잘 지내고 있어. 본사 사무직으로 해왔던 일과 많이 달라졌지만, 전공했던 프랑스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또 알 기회가 별로 없었던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현장은 복합화력발전소로, 알제리 수도인 알제(Algiers)에서 시간 반 걸리는 부메르데스(Boumerdes) 바닷가에 있어. 가끔 내가 보내준 바닷가 사진 봤지? 발전용량은 400MW짜리 3호기로 총 1,200MW고, 우리 회사가 처음 해보는 싱글 샤프트(Single Shaft) 방식이야. 발전기와 회수 보일러 배치가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배치된 형태라고 해야 할까? 멀티 샤프트(Multi-Shaft) 방식과는 시공 방법이나 시운전 절차가 달라서 난이도가 더 있지. 지금은 시운전 단계인데, 우리 회사 자국인 직원들로 구성된 시운전 팀이 수행하는 것도 첫 시도래. 우리 현장은 여러모로 새로운 도전을 많이 시도한 것 같아. 그만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직면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고민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대외 공무야. 발주처 및 외부 기관과 관계된 공문, 통·번역, 회의 등이 주 업무지. 처음 왔을 때는 플랜트 분야나 기술 용어가 생소해서 매우 어려웠어. 부끄러울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부터 주변에 여쭙봤었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인 부분까지도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과외선생님처럼 많이 가르쳐주셔서 잘 헤쳐올 수 있었어. 여전히 공부할 것들은 태산이지만 말이야. 알제리는 북아프리카면서 무슬림 국가야. 그렇다 보니 유럽 성향도 있지만 중동의 향기가 강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 같아.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온 자체도 흥미롭고, 눈이 시리게 파란 하늘과 짙한 햇빛도 마음에 들어.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와 술은 없지만 휴가 때 한국 음식을 가져와서 옹기종기 모여 요리해 먹는 재미가 있고, 국가 정세가 좋지 않다 보니 외출은 금지지만 좋아하는 영화나 책도 공유하고, 함께 운동이나 보드게임도 하고, 나름의 재미를 찾으며 지내는 중이야. 한정적 공간에 지내니까 함께 있는 분들과의 관계도 많이 중요하잖아. 그런데 우리 현장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들 참 재미있고 좋으서. 또 해외 현장 특성상 여성 직원이 별로 없다 보니 더 많이 배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히 지내는 중이야. 참, 우리 13 하반기 동기도 두 명이나 있어서 가끔 조출한 동기 모임을 하곤 해. 나중에 돌아가면 예전처럼 우리 집에 동기들 초대해서 신나게 놀자!

처음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떨어지게 되어 속상했었어. 그런데 시간은 의외로 잘 가더라. 더 기쁜 건 그럼 우리가 함께할 날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조만간 우리가 함께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돌아가서 함께할 날들을 그리며 이것저것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꼭 결혼 준비할 때 같아서 설레기도 해.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도 끊기는 화면으로 꾸역꾸역 영상 통화를 시도하는 이 나날들이 분명 추억으로 남을 거야.

우기와 혹서가 반복돼 나이지리아 기후가 좋지 않다던데,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 안전 장비와 마스크, 선크림은 잔소리하지 않아도 잘 챙기고 있겠지?! 휴가 때는 남만의 도시 파리에서 만나자. 언제나 든든한 내 남편 김태훈, 파이팅! 사랑해요~ ♥

나이지리아 전출 장비와 함께 실려 가
남편을 만나고픈 유진이가



ALGERIA

tmi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알제리.

그 황량한 사막에는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는

우리 직원들이 있다. 누군가의 동료이자

누군가의 가족인 이들을 위해 탐구해본다.

알제리의 소소한 이모저모.



사하라 사막에도 눈이 온다면

알제리 국토의 약 85%를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

강렬한 햇빛과 악명 높은 건조함으로 유명하지만,

지난해 1월에는 폭설이 내려 화제를 모았다.

해발 1,000m에 위치한 아인세프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얼어붙을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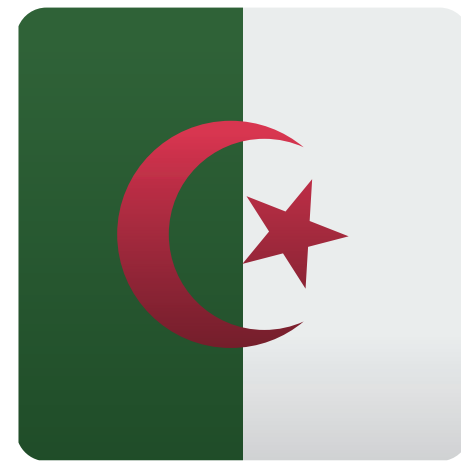
추위 간혹 눈이 내릴 순 있지만, 최대 40cm의

눈이 쌓인 것은 이례적이다. 다수 전문가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사막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제대로 된

관측이 어려워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깃발이 국기가 되기까지의 시간, 약 130년

국기를 보면 나라가 보인다. 국기 정중앙에

이슬람 국가의 상징인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알제리 국기처럼 말이다. 국기의 뒷배경인

초록색은 번영, 하얀색은 순결과 평화를 의미하며,

빨간색은 독립을 위해 힘쓰다 죽은 전사들의

피를 뜻한다. 프랑스의 식민통치가 이뤄지던

1830년대 저항운동에 앞장서던 이들이 사용하던

깃발로, 독립을 이룬 1962년에도 비로소 국기로

공식 지정됐다. 해방을 위해 달려온

130여 년의 역사를 함께한 깃발인 셈이다.



지중해의 햇빛을 담은 레드와인

술은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되는 식품 중 하나다.

하지만 알제리는 프랑스의 영향으로 19세기부터

꾸준히 와인을 제조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알제리의 포도밭 면적은 약 40만 헥타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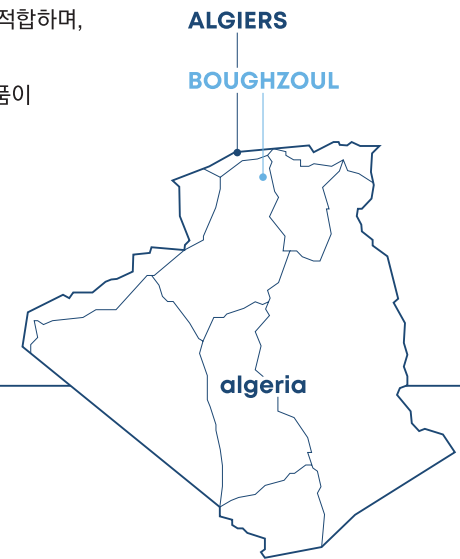
이르렀다고. 특히 북쪽에 펼쳐진 고원지대는 비옥한

토양과 지중해 기후가 어우러져 포도 재배에 적합하며,

강하고 깊은 맛의 레드와인을 주로 생산한다.

다만, 이슬람의 영향으로 내수용보다는 수출품이

대부분이다.



DAEWOO E&C project

사막 위에 도시의 밀거름을 뿌리다

알제리부그줄신도시 현장

알제리 부그줄에는 한국의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짓는 공사 현장이 한창이다.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남쪽으로 170km

지점에 위치한 이 현장은 도로포장, 우오수,

상중수, 공동구, 가스, 전기, 통신공사 등

신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알제리는 해외 건설사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많은 나라 중 하나지만,

대우건설은 우수한 품질과 확고한 안전관리를

통해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1989년 알제 힐튼호텔 건설공사를 수주해

우리나라 건설업계 최초로 알제리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후 비료공장과 아르주 LNG

플랜트, 젠젠항 컨테이너터미널 공사,

엘하라쉬 하천복원사업 등 무수히 많은

공사들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역시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알제리 건설사업의 신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알베르 까뮈가 사랑한 항구도시

수도 알제에서 70km 거리에 위치한 항구도시

티파사. 고대에는 카르타고의 무역항이었고,

로마시대에는 로마의 정착촌이었다. 여러 시대의

유적이 독특하게 모여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198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중해 연안의 날씨와 항구도시만의 분위기,

지난 역사를 집작하게 하는 여러 유적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뽐낸다. 소설 <이방인>의 저자 알베르

까뮈가 유년시절을 보낸 도시이기도 하다.

그는 산문집과 소설 곳곳에서 티파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봉주르’ 보단 ‘앗쌀라무알라이쿰’

이슬람에서는 사업 관련 계약 역시 ‘신의

뜻(인샬라)’이라고 믿는다. 소유주는 신이고,

인간은 관리자라는 관념이기 때문에 이미 지정한

계약 조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삼가는 것이 좋다.

공식 언어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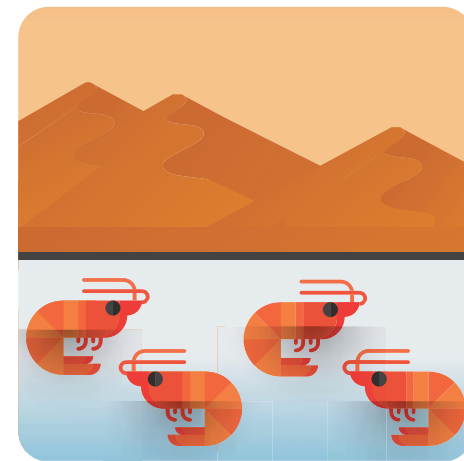
불어 역시 상용어로 쓰인다. 인사 역시 프랑스식

표현(오른쪽 뺨을 맞대어 인사하는 비주 혹은 ‘봉주르’)이

통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슬람식

인사말인 ‘앗쌀라무알라이쿰’이라고 말하면

좀 더 친근감 있게 대한다고.



저 넓은 사막 위의 새우 양식장

지난 2017년, 사하라 사막에 새우 양식장이

설립됐다. 사막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새우 양식

시설이다. 물이 부족한 지역인 만큼, 한 번 확보한

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순환시키는 친환경적

방식을 도입했으며, 미생물을 이용해 양식 과정 중

발생하는 물고기의 배설물과 사료 등을 해결하는

‘바이오플록’ 기술을 적용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우리나라의 우수 양식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다. 앞으로도 한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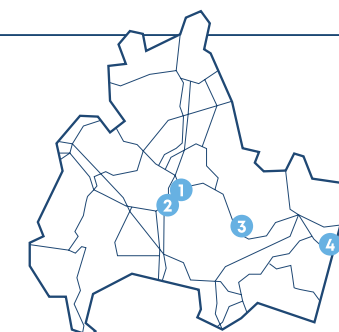
알제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예정이라고.



건축으로 보다, 신라를 읽다

손꼽히는 국내 여행지인 경주는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운 곳이다.
본 것과 아는 것은 분명 다르다. 신라의 천년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어려있는 도시,
경주의 주요 건축물을 통해 그 역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본다.

글.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GYEONGJU

- | | | | |
|---|---------------------------------------|---|--|
| 1 | 첨성대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 | 3 | 불국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
054-746-9913 |
| 2 | 분황사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
054-742-9922 | 4 | 감은사지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3 |

1300년간 신라의 하늘을 받쳐온 건축물

경주시 인왕동에 가면 반월성과 대릉원 사이 들판에 첨성대가 우뚝 서 있다. 이 역사학적 건축물은 1300여 년간 단 한 번의 보수와 개축 없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불린다. 통일신라 이전에 고대 중국, 이집트에 신전과 함께 많은 천문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무너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은 첨성대가 유일무이하다.

첨성대가 세워진 시기는 선덕여왕 때인 것으로 보여진다. 호리병 모양을 한 독특한 생김새로 아래에서부터 크게 기단부, 원통부, 정상부로 나뉘는데, 그 중 가운데 원통부는 석재를 방형으로 다듬어 들어쌓기로 축조했다. 바깥에서 보면 잘 다듬어진 장방형 형태지만, 위쪽에서 보면 뾰족기 형태로 앞부분에 비해 뒷부분은 길쭉한 형태다.

흥미로운 점은 경주가 비교적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부산, 양산, 경주, 포항을 지나는 양산단층과 울산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울산단층, 경주는 두 지층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하지만 신라 7세기 무렵 100여 명이 사망한 지진에도, 2016년 9월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도 첨성대는 무사했다. 전문가들은 ‘하부가 상부보다 직경이 더 길고, 원통부에서 입구 아래로 내부에 전부 자갈과 흙이 메워져 있어 무게중심이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없이 무너진 건축물들 사이에서 깨끗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첨성대를 떠올리노라면 신라인의 지혜와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씀씀이에 자연스레 숙연해진다.



© xiquinhosiva

선덕여왕의 염원을 담은 신라 석탑

첨성대에서 자동차로 5분만 달리면 드넓은 벌판이 펼쳐진다. 황룡사의 절터인 황룡사지이다. 그 황룡사지 바로 옆에는 분황사가 자리하고 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재위 기간에 지어진 절이다. 원효대사가 거주하며 화엄경을 쓴 곳이자, 자장율사가 선덕여왕의 권유로 오랫동안 머무른 곳이다. 또한,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이 원효대사 사망 후 아버님의 소상을 만들어 모셨고, 이 소상이 고려시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역사가 거쳐간 곳이지만, 분황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보 제30호 모전석탑이다. 모전석탑(模塹石塔)이란 석재를 전돌 모양으로 모방하여 다듬은 후 쌓은 탑을 말한다. 탑은 본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건축물로, 1915년 석탑 수리 과정에서 사리장치가 들어 있는 석함이 발견됐다고 한다.

석함 안에는 유리구슬, 금으로 된 바늘, 고려시대 화폐 등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고려시대 화폐가 있다는 것은 고려시대에도 모전석탑을 수리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탑에는 그 시대의 염원과 특징이 담긴다.

모전석탑은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축조한 것으로, 신라 석탑 양식의 주춧돌이 되는 초기 양식이다. 기단 네 모서리에는 사자가 지키고 있고, 1층 탑신(탑의 몸체) 네 곳에는 각각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양쪽에 인왕상(사찰이나 불전의 문 또는 불상 등을 지키는 불교의 수호신)이 부조되어 있어 불국(부처의 세계, 부처가 사는 국토)을 수호하는 의미를 지닌다. 신라를 통치한 선덕여왕의 염원을 구현한 것이 탑의 건립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3층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9층이었을 것이라 설이 가장 유력하다.



고전적인 절제미와 낭만적인 화려미

경주 여행의 백미로 꼽히는 불국사에는 건축적 묘미가 가득하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동서로 서 있는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751년에 세워졌다. 석가탑은 일반적인 전형을 따르고 있고, 다보탑은 장식성이 강한 이형탑의 형태다. 먼저 석가탑을 소개해본다. 정식 명칭은 불국사 삼층석탑으로,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의미의 무영탑이라고도 불린다. 문화원형백과 중 한국석탑에 글을 인용하자면 “석탑은 기단부나 탑신부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결하고 장중하며, 각 부분의 비례가 아름다워 전체의 균형도 알맞고 극히 안정된 느낌을 주는 뛰어난 작품”이라 일컬어진다. 석가탑의 동쪽에는 다보탑이 자리하고 있다. 다보탑은 기단에서부터 사각, 팔각, 원형을 아우르며 복잡하지만 매우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부재 하나하나를 다듬은 솜씨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오게 만든다. 다보탑은 1925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에 의해 완전 해체·보수가 된 적이 있었다. 그때 탑에서 불상과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는데, 전해지는 유물도, 조사에 대한 기록도 없어서 우리는 다보탑에 대한 자세한 역사를 알 수 없다. 다보탑은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풍파와 시간을 견뎌왔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

© xiquinhosiva



목탑의 구조와 석탑의 양식을 더하다

경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 면적이 매우 넓은 편이다. 불국사에서 동쪽 끝으로 20여 분 정도 차로 가면 동해를 만날 수 있는 도사이기도 하다. 바다가 닿기 직전, 길가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쌍탑도 눈 여겨 봐주길 바란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이다. 정식 명칭은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이다. 국보 제112호로 지정된 이 탑은 감은사가 창건된 682년에 건립됐다. 감은사는 삼국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려고 처음 건립했으나, 이를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뜨자 그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완성한 절이다. 여기에 건립된 동서 삼층석탑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크고, 목탑과 같이 많은 부재를 결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목탑의 양식을 계승한 통일신라 석탑의 시원 양식을 잘 보여준다. 서탑은 1959년에, 동탑은 1996년에 해체·수리했다. 그 당시 발견된 사리장엄구에는 네 벽면에 사천왕상이 표현된 외함과 전각 모양의 내함을 만들고 그 안에 수정 사리병을 안치했다. 워낙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어 신라의 놀라운 금속 세공기술을 엿볼 수 있다.

경주는 신라인들이 남긴 수많은 유적, 유물을 통해 신라인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시다. 청명한 공기를 마시며 이른 아침부터 저물녘까지 신라인의 지혜와 손길이 느껴지는 신라 건축물 답사를 떠나보길 바란다.



박방룡

글을 쓴 박방룡은 고고미술학을 전공한 뒤 박물관에서 근무하며 문화재와 일생을 함께해왔다.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및 고고역사부에서 일했다.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부산박물관 관장을 역임 후 현재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서유기

손오공이
들려주는

마음 안 맞는
동료와
백지장
맞드는 법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모험담 <서유기>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뚜렷한 네 구성원의 모습에서 우리를 비칠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출한 재주를 가졌으나 그만큼의 단점을 가진 이들이 서로에게 얹히고설키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 ‘협력’과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글. 성태용



삼장법사

배려심은 많지만
추진력은 턱없이 부족한
투명인간 리더

“백지장 맞들다간 찢어진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속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를 뒤집어본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뒤집어 본 말이 맞지 않는가. 실제로 여럿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남과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힘 해치워버린다고, 그 결과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배워나가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나날이 발전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서유기는 삼장법사가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다녀온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소설이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가는 재미있는 모험담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참으로 심오한 의미, 무릎을 치게 만드는 비유가 숨어있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용마라는 주요 구성원들은 모두 인격완성을 위한 긍정적인 힘들을 나타낸다. (불교의 교리로는 신행, 정진精進, 염승, 정定, 혜慧의 힘이다). 이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펼쳐보자. 우리 세상은 손오공 같은 사람들, 저팔계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상인 것이다. 한 개인으로 말하면 그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요소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서유기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조화롭고 성숙한 세상을 꾸려가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역경도 많고, 사고도 잦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역경은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에서 온다. 서유기에서 극단은 손오공이 쫓겨나는 일이다. 손오공은 그 구성원 가운데 가장 잘난 존재이다. 힘도 세고, 도술도 높다. 그래서 요괴의 정체를 가장 빨리 알아채는데, 삼장법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불쌍한 모습으로 분장해 나타난 요괴를 몰라본다.

손오공은 망설임 없이 요괴를 잔인하게 때려죽이고, 삼장법사는



사오정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방관자형 리더

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거 아닌가!” 손오공의 푸념에 보살은 점잖게 타이른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불경을 받아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 불경을 가지러 가는 과정, 다섯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는 긴 과정이 결국 불경을 값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서유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물론 모두 알다시피 인도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삼장법사와 손오공 등 모든 일행이 부처나 아라한 등 위대한 존재로 승격된다. 협력과 조화를 통해 성숙하면 위대한 존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요괴에 머물 뿐이다.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여러 구성원이 조화를 이루면 성숙한 사회가 된다.

그렇지 못하면 각각 제 잘난 것에 날뛰는 군상들로 가득하거나 극단적인 양극화로 파탄이 나는 사회가 된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열쇠는 협력과 조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숙이다. 현실 속에서도 여럿이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부족한 존재들의 협력만이 개인과 사회를 성숙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중요한 점은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백지장을 맞드는 번거로움까지도 감수하면서 함께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나가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자비심 없는 손오공을 야단치고, 손오공을 은근히 시기하는 저팔계는 이때를 틈타 삼장법사를 부추긴다. “저 재주 좋은 척하는 사형이 다 꾸민 일입니다. 불쌍한 아이와 노인을 죽이고, 마치 요괴인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삼장법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손오공을 파문해버린다.

그런데 잘난 척하던 손오공이 쫓겨나면? 당연히 나머지 일행은 요괴의 함정에 빠진다. 그렇다면 손오공은 잘못이 없고 나머지 일행의 무지와 시기심만 탓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혼자 잘난 체하면서 나머지 구성원과 손발을 못 맞춘 손오공의 잘못도 크다. 역경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성원들이 재결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요괴를 물리치는 길밖에 없다.

그때는 저팔계가 제 장점을 발휘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감정적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둔하다. 그런데 저팔계는 본디 감정과 욕망의 상징이다. 손오공을 적당히 어르고 구슬려 데려오는 것도 저팔계다. 이 구성원 간의 갈등과 극복, 협력과 조화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아주 힘든 역경에 빠졌을 때 손오공은 이렇게 푸념하기도 한다. “부처와 보살들이 게을러빠져서요! 자기들이 전해주면 될 것을 우리를 오라 가라

저팔계

장점은 언변,
단점은 신술귀물한
말 바꾸기인
촉새형 리더



성태용
성태용은 전 건국대 철학과 교수로 건국대학교 문과대 학장과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오늘날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인문학 단장을 맡아 인문학 진흥사업에 초석을 놓았다. 저서로 <주역과 21세기>, <오늘에 풀어보는 동양사상>(공저) 등이 있다.

요즘

취미 레슨

뜨는 운동법

여름이 끝났다고 어느새 운동을 게을리 하고 있다면, 이번 추석에도 과식을 피하지 못했다면, 흔한 운동 말고 새로운 운동을 찾고 있다면, 지금 주목해볼 만한 요즘 뜨는 운동법.



© 시티포레스트빌, 파라다이스시티

캥거루처럼 점프 점프

Kangoo Jump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생긴 부츠에 바퀴 대신 특허 받은 스프링 시스템이 달린 슈즈로 운동한다. 슈즈는 하단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해 관절의 무리는 덜고, 뒤통자만 해도 운동량과 효과가 두 배 이상 높다. 충격을 흡수하는 시스템이라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줄이고 자세 교정에도 탁월하다

있었던
운동 흥미까지
되살려줄

인싸 운동



© 서울스포츠진흥원

드럼을 치듯 스트레스도 딱딱

Pound Fit

할리우드에서 우리나라로 갓 상륙한 파운드핏은 전용 스틱인 '립스틱'을 이용한 전신운동이다. 타악기를 치는 동작과 에어로빅 동작을 음악과 함께 결합한 신개념 피트니스다. 수업시간 동안 1만 5,000번에서 2만번 가량 스틱을 두드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 몸의 균형 유지, 다이어트,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

이름하여 손예진 운동법

TRX

SBS <집사부일체>에서 '손예진 운동법'으로 소개돼 화제를 모은 TRX는, 미 해군 특수수색대의 한 군인이 운동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낙하산 줄을 탱크에 매달아 운동하던 것이 시초다. 전신 근력을 사용한 강도 높은 운동으로, 휴대가 간편한 끈 형태의 도구 하나만 있으면 집이나 실외에서 간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TV, 영화에서
봤어!

따라 하고 싶은
그 운동



우리도 영화 주인공처럼

Climbing

재난액션영화 <엑시트>의 흥행 덕분에 최근 실내 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온몸 근육을 쓰는 전신 운동이자 고도의 집중력과 상황 판단력, 지구력까지 함께 길러줘 대표적인 '몸과 머리를 함께 쓰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맨몸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예기치 않은 성취감을 안겨준다.



© EDM 요가 플라이트

EDM과 요가가 만났다?!

EDM Yoga Flight

고요하고 정적인 줄로만 알았던 요가를 일렉트로닉 비트에 맞춰 마치 춤을 추듯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EDM 요가 플라이트는 댄스와 요가, 피트니스가 결합된 말 그대로 '퓨전' 운동인 것. EDM과 함께 8개 세션의 댄스와 요가 피트니스 동작이 합쳐진 운동을 하고, 이어서 코어 강화 운동,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된다.

들썩들썩
흥부자를 위한

댄스 결합
피트니스



복싱 + 필라테스 + 댄스

Piloxing

2010년 스웨덴 출신 유명 댄서이자 필라테스 마스터가 창시한 융복합형 운동 프로그램이다. 복싱의 민첩성과 파워, 스피드에 필라테스의 유연성을 더하고, 신나는 댄스 동작까지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복싱, 필라테스, 댄스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한 시간 동안 번갈아 진행하고,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1팀 대홍문

1조라도 안보이면 어떻게 조조한 1조. 대홍문

박승근(멘토) 김소민 김기현 이의태



우리는 모두 대대홍 히어로즈!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6기

2009년 건설업계 최초 대외활동으로 시작된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가 16기를 맞았다. 지난 5월 발대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 30명의 홍보대사들은 리뉴얼된 푸르지도 홍보 영상과 CF를 만들어 홍보활동을 펼쳤다. 집배원 휴게시설 개선, 소외계층 집 고치기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남다른 끼와 열정을 가진 이번 16기와, 함께해준 멘토들을 소개해본다.

2팀 상상그2상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

유민환(멘토) 유승현 손원표 차연재



3팀 블랙커피

만인의 일상 속에 녹아드는 블랙커피 같은 사람들

유성권 송소영(멘토) 서혜인 정서영



4팀 너나들이

너와 나의 대우건설 나들이, 너나들이

이지범 임수빈 신민영 손현민(멘토)



5팀 오벤저스

대대홍의 진정한 히어로, 오벤저스 아셈블

손동욱(멘토) 심규환 천상희 최리라



6팀 핫식스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의 그들, 핫식스

홍근후 정다혜 김준원(멘토)



7팀 무지개

각양각색 인재들이 모여 내는 무지개빛 시너지

황상규 이윤미 박은주 노진아(멘토)



8팀 리본

화기보다 먼 인천보다 가까운 그대 우리 사~이

임홍웅(멘토) 나효빈 추윤지 이재영



9팀 YOUNG 02

대대홍의 산소 같은 존재! 젊은 에너지를 담당하는 YOUNG 02

강지혜(멘토) 김소영 박민경 최경령



10팀 뉴토피아

오늘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나라 뉴토피아에 초대합니다.

채종환(멘토) 유승지 전솔 한진아



대대홍 3라운드 집배원 심터 환경개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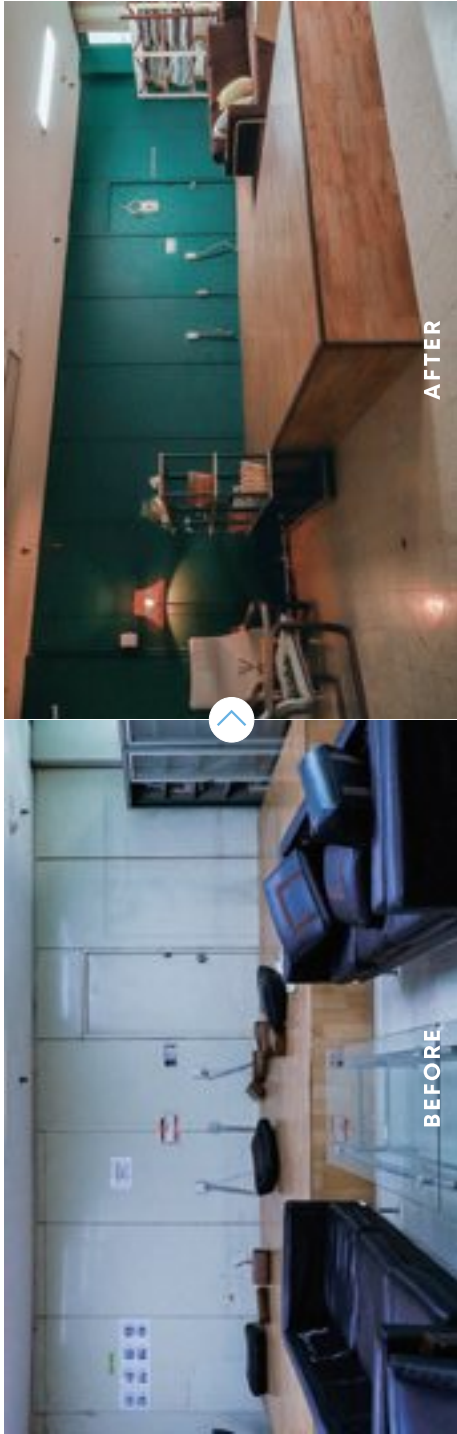
대대홍 활동 1, 2라운드 동안 새로운 푸르지오 홍보를 위해 중형무진 온오프라인 활약에
나선 대대홍 친구들. 10월 초 해단을 앞둔 마지막 활동인 3라운드에서는, 건설회사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인테리어 CSR 환경개선 활동에 나섰다. 작년 진행했던 전통시장 Art project,
유기동물 보호소, 소방관 이용 시설에 이은 올해의 주인공은 바로 '집배원 심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몸과 마음이 지쳤을 집배원분들. 그들에게 대대홍의 손길이 담긴 쉽터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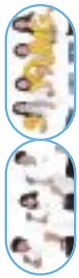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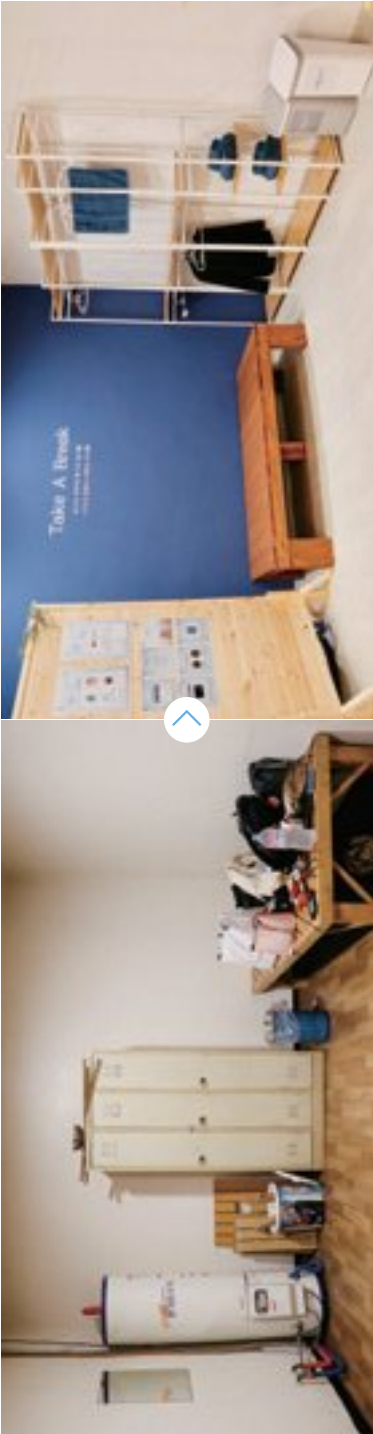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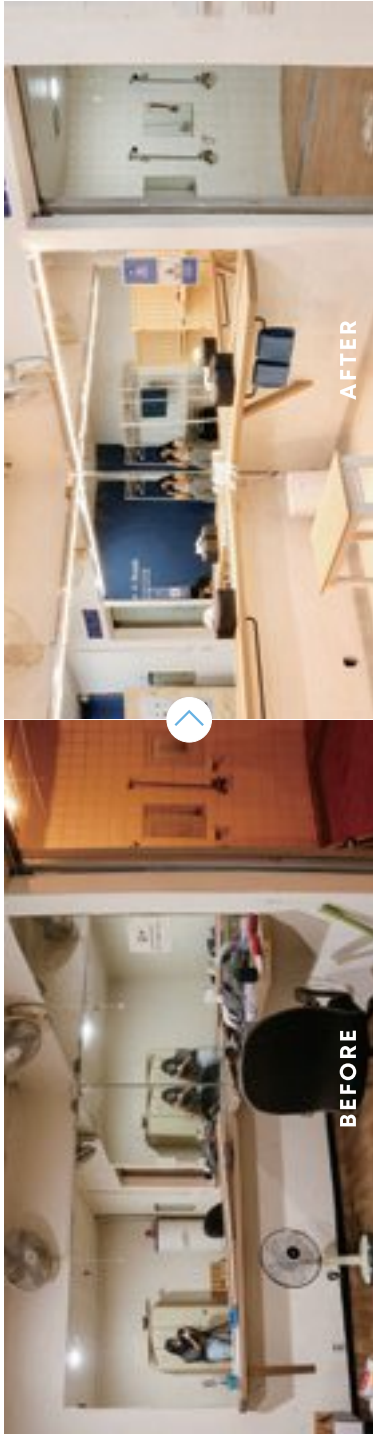
P52T(2팀x5팀) — 양천우체국

양천우체국의 심터 개선은 '동지' 컨셉으로 진행됐다.
집배원을 상징하는 '제비'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대대홍의 마음이 담겼다. 주로 낮잠을 자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기존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시설인 온돌마루를 연장해 더 많은 인원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소파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분위기를 180도
바꾸고 심터 한 견에는 새로운 안마 공간을 마련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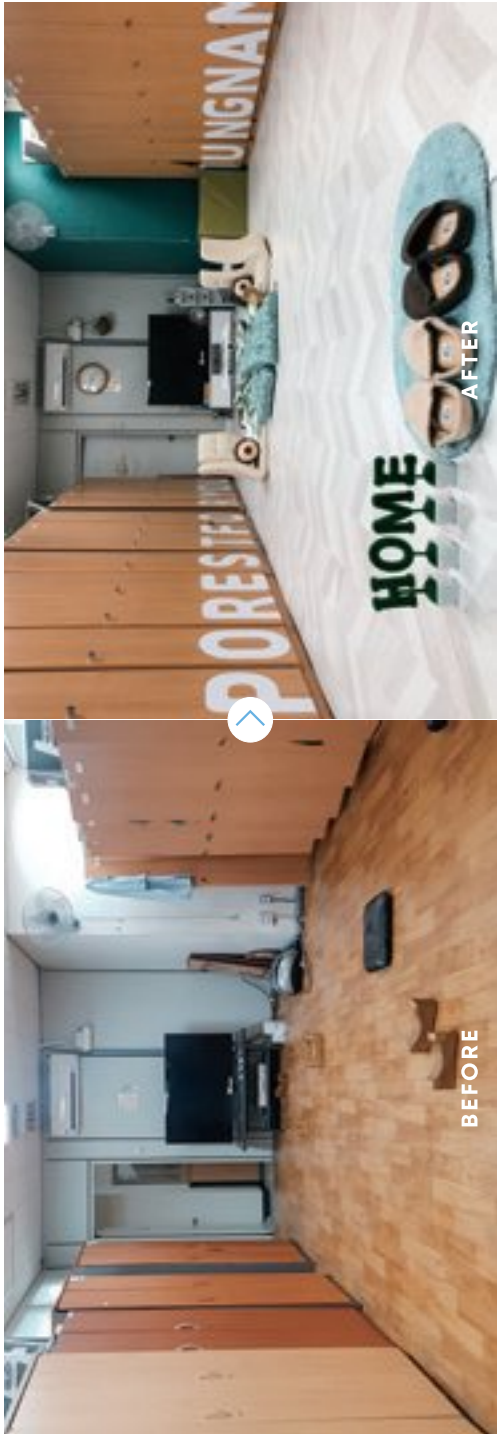
데칼코마니(3팀x8팀) — 송파우체국

오래된 목욕탕이 연상되는 기존 공간과는
정반대로 세련된 '스튜디오' 컨셉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도했다. 맘을 씻어내는 공간이라는 샤워실의
기능을 반영해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의 화이트와 블루를
메인 컬러로 사용했다. 샤워실과 대기실의 조명을
모두 교체해 한층 밝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노후됐던
샤워 수전도 모두 교체했다.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행거를 설치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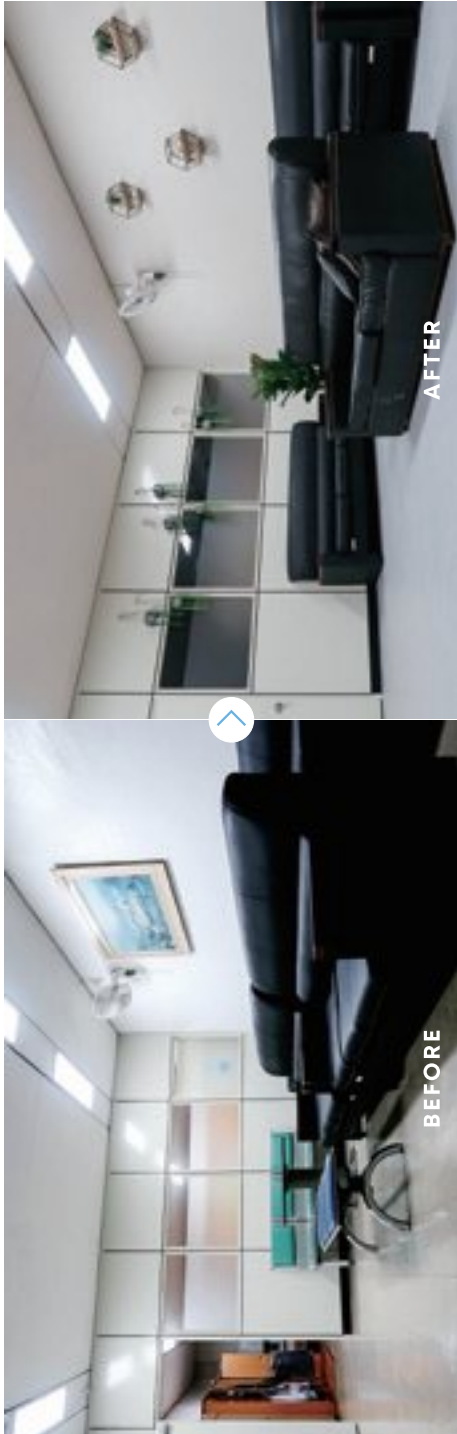
YOUNG SIX(6팀x9팀) — 중랑우체국

휴식을 위한 'For Rest' 에 'Post Office'의 P를 합성해
우체국 안의 작은 심터, 'POREST'를 조성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헤링본으로 교체하고 한 쪽 벽에는 초록색을
칠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캐비닛밖에 없어 별다른
휴게 공간이 없던 중앙부에는 작은 테이블과 등받이 의자를
설치해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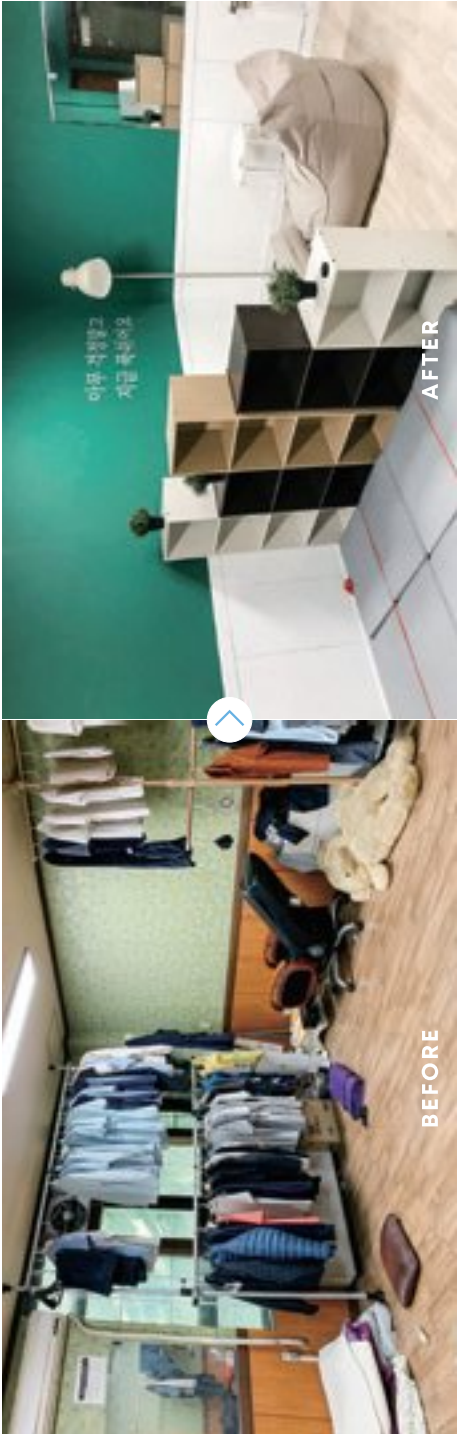
포텐(4팀x10팀) — 광화문우체국

기존의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하얀 벽과
천장에 따뜻한 색감의 아이보리톤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은 밝은 그레이 타일로 전면 교체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다. 공기정화는 물론 인테리어에도 한껏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 식물도 개설했다.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웠던
심터에 공기청정기도 추가로 설치해 집배원분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Rainbow(1팀x7팀) — 강서우체국

미관을 해치고 옹도가 불편하던 행거로 가득했던 심터가
온전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복잡했던 벽면은 깔끔한 그린과 화이트 컬러로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얼룩지고 손상되었던 장판 또한
밝은 톤으로 교체했다. 휴식을 위한 테이블 설치는 물론
한쪽은 수납장으로 공간을 분리해 취침 공간과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대대홍이 돌아왔다 10주년 홈커밍데이

2009년에 시작된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가
10주년을 맞이했다. 16기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대대홍은 건설업계의 대표 대외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열정을 다해 대대홍을 이끈 600여 명의
홍보대사 덕분이다. 그간 함께했던
수많은 홍보대사들과 담당자들이 대대홍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COMING HOME DAY



다시 만난 이들과 추억해보는 과거의 우리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박석훈 홍보실장의 축사가 홈커밍데이 행사의 문을 열었다. 그간 활동했던 전 기수의 홍보대사부터 현재 활동 중인 16기가 한 데 모인 만큼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자리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다양하지만 대대홍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얻은 것은 꼭 닮았다.

대대홍의 지난 10년을 담은 영상도 함께 시청했다. 지난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 활동사진부터 옛된 얼굴들이 한껏 웃고 있는 모습, 이전 담당자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이어졌다. 누군가에겐 그림고 누군가에겐 궁금할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자 모두 ‘나의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른다는 듯한 반응이 튀어나온다.

5자 토크, 테이블 퀴즈, 베스트드레서상 등 흥을 돋우는 행사도 진행됐다. 행사가 무르익어 가는 중에도 뒤늦게 문을 두드리는 이들 덕에 행사장은 연신 불볏다. 어엿한 직장인이 된 서로의 변화에 놀라는 모습도 간간히 목격됐다.

대우건설이 지난 홍보대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시작된 자리는, 곧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고맙다”는 감사인사로 끝맺음이 났다. 그 시절 함께했던 동기와 나의 모습을 떠올려본 10주년 행사가 또 다른 추억을 쌓고 새로운 인연을 가져가는 기회로 이어졌을 하루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고

지난 7월, 여름방학을 맞은 100여 명의 임직원 자녀들이 1박 2일 '꿈나무 초대행사'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의 사무실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부모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행사다. 본사에 모여 부모의 직장 동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수원 기술연구원에 도착했다. 연구동을 돌며 회사의 핵심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건물 풍압과 관련된 실험이 이뤄지는 풍동실험실에서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보기도 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방음 스펀지로 덮인 무향실에서 무음 상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놀이만큼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랴. 영화 관람을 비롯해 줄다리기, 쟁거루 릴레이, 피라미드 쌓기 등이 진행되는 명랑운동회를 통해 함께 땀을 쏟아냈고, 저마다 춤과 노래 솜씨를 뽐내며 잠시나마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오스탬플랜트중앙연구소 현장을 찾았다. 안전모를 눌러 쓰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현장 구석구석을 구경한 아이들,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여름방학에는 대우건설과 함께

지난 7, 8월 여름방학을 맞아 대우건설이 임직원 자녀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직원 자녀들과 함께 건설현장에 방문해 건설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꿈나무 초대행사' 그리고 영어와 더욱 친근해질 수 있는 'FUN FUN 주니어 영어캠프'다.



day 2



2019 꿈나무 초대행사



day 1

또래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해요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또 다른 행사도 열렸다. 지난 8월, 인재원에서 진행된 'FUN FUN 주니어 영어캠프'는 4박 5일간 임직원 자녀 30명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생활하며 영어를 경험하는 행사다. 또래라는 공통점 덕분일까. 아이들은 이내 친근하게 어울리며 서로의 서툰 영어에 귀를 기울였다. 함께 교실을 꾸밀 소품을 만들고, 장래희망을 발표하고, 그림책을 만들어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이외에도 과일 화채 만들기, 장기자랑,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을 영어로 소화하며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는 것에 더욱 가까워졌다. 오감을 자극하는 야외활동도 진행됐다. 물풍선과 물총을 사용해 중력과 수력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수업이다. 캠프파이어와 단체게임은 일정의 마지막 밤을 장식했고, 캠프가 종료되는 날에는 수료식과 시상식 그리고 롤링페이퍼를 쓰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 원어민 강사를 만났을 때의 머뭇거림이나 처음 만난 친구들 앞에서의 어색함도 찾아볼 수 없다. 영어 능력의 향상 이외에도 부모의 직장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꽤 특별한 일이다. 대우건설 역시 임직원의 아이들을 만나며 책임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speak



play



FUN FUN
주니어
영어캠프

write



괴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지난 7월 20일, 괴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105,071m²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9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개발사업 88호 문화공원 조성공사 수주

(주)웨이브파크에서 발주한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개발사업 88호 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수주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화MTV 거북섬 내에 서핑파크, 수상레저시설 등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2020년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도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현장 준공

지난 8월 2일, 송도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현장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3층-지상 15층 오피스텔 343실 및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테크노밸리 현장 준공

지난 8월 14일, 하남테크노밸리 현장이 하남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3차) 수주

(주)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발주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3차)를 수주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2,037,717m² 면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2024년 1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라크 알 포 도로공사 수주

이라크항만공사에서 발주한 이라크 알 포 도로공사를 수주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 알 포 지역에 기존 도로와 알 포 신항만 내 도로를 연결하는 총 길이 14.6km의 진입 도로를 건설하며, 착공 후 19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EO 안전점검 — 대신2차푸르지오 현장

지난 7월 17일, 김형 사장은 대신2차푸르지오 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를 강조하며,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유무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확인해주기를 당부했다.



CEO 안전점검 — 오릉에듀포레푸르지오 현장

지난 8월 21일, 김형 사장은 오릉에듀포레푸르지오 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형 사장은 이 자리에서 기본과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안전활동 실시를 당부했다.



CEO 및 경영진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지난 9월 5일, 김형 사장과 경영진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들을 위로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 회사는 1996년 수도방위사령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명절 위문 방문, 시설 개보수 공사, 기부금 전달 등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 논현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월 24일, 회사는 인천 남동구와 인천 논현 푸르지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공 보육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실시

지난 9월 4일, 인사경영지원본부와 경영기획본부 임직원 10명은 노원구 일대에서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단열 작업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임직원 동전모아 사랑 실천하기' 기금이 사용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집밥 웰선생 쿠키&베이킹 클래스 진행

지난 8월 23일, 본사 구내식당에서 한마음 Happy Day의 일환으로 집밥 웰선생 쿠키&베이킹 클래스가 진행됐다. 마르게리따, 고르곤졸라 피자과 수제피클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참여자들은 직접 반죽을 하고 도우를 만들어 토핑하는 등 피자 만들기에 도전했다.



베트남 CC1과 사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지난 8월 23일, 베트남 종합건설회사 CC1과 포괄적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을지로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건설시장 입찰정보를 교환하고 베트남에 다양한 신사업 진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9 현장관리책임자 워크숍 실시

지난 8월 23일과 24일, 수원 인재원에서 2019 현장관리책임자 워크숍이 실시됐다. '관리책임자 변화의 시작'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은 관리책임자 역량제고 방안, 직무교육(구매절차, 국내노무, 컴플라이언스 교육), 인사경영지원본부장과의 대화 등의 일정이 진행됐다.



푸르지오 어린이집 에헤라디야 푸르지오 한마당 행사 진행

지난 9월 7일,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행사가 열렸다. 26가족이 모여 전통놀이와 복주머니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한복 입기 등의 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대우를 이겨라!' 추석맞이 윷놀이 이벤트 진행

지난 9월 9일,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는 서울 광화문 일대와 을지로 사옥에서 추석맞이 윷놀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정대우 캐릭터가 던진 윷패보다 높은 패를 던진 참여자에게 윷놀이 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로, 소비자들과 보다 친근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등 일리 커피머신



황금빛(해외HSE팀 권오진 대리)

‘캠핑, 어디까지 해봤니?’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TV프로그램 ‘캠핑클럽’을 보며 캠핑에 대한 환상과 설렘을 키워온 저에게 꼭 필요한 기사였어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심적으로 지치기 부지기수죠.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서 ‘취미도 누군가 레슨을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성과 내기에 급급한 업무생활에서 직원들의 취미생활까지 걸잡이 해주는 취미 레슨 칼럼을 통해 기사만으로도 충전이 되는 듯합니다. 계절 좋은 9월, 남편과 카라반 오토캠핑을 떠나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우건설인!

2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이민정(나이지리아 GBARAN INFILL PJ 현장 손창원 대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칼럼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 전 오만 현장에 있었고 결혼 5년 차인 지금은 나이지리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손창원 대리! 오늘이 결혼 5주년 결혼기념일이라 가족에게 보내진 이 편지 칼럼이 더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삶의 목표가 같기에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민영(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 현장 이지성 과장)

‘인방보형 제진덤퍼’에 대한 기사를 아이와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내진설계가 이제는 아파트 건설의 필수 요소가 된 시점에서 대우건설이 복합 제진덤퍼, 라운딩커팅형 제진덤퍼 개발로 기술 개발 선두에 있다고 하니 기쁘고 자랑스롭습니다. 대우건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칼럼을 사보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등 기프티콘 2만원 상당

김향미

(강진광주고속도로1공구 현장 양영진 과장)

‘현장에서 찾은 지혜’ 칼럼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앞으로의 푸르지오를 기대하게 만들어 더 재미있게 읽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푸르지오가 전 세계의 멋진 아파트 브랜드로 빛나길 기원하며, 저도 저를 위해서가 아닌,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새롭게 빛날 푸르지오를 응원합니다. NEW DAEWOO! NEW PRUGIO! 파이팅!

김경연(IT기획팀 진순환 차장)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칼럼이 기억에 남습니다. 해외현장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의 가족으로써 깊은 공감이 가네요. 지금은 인터넷과 이메일, 전화 등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제 당시에는 약속한 시간에 전화기 옆에서 기다려야만 통화했었죠. 서로의 시차에 맞춰서요. 저 먼 오지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과 안부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권지영

(알제리엘하라쉬하천정비 현장 이부균 과장)

‘타타임 도시여행’ 칼럼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 중이어서 휴가 때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휴가 때는 세계인의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한국의 서원을 찾아가는 여행을 해봐야겠네요.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02-2288-1883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 일렉트로룩스 무선청소기
2등(2명) —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3등(3명) — 기프티콘 2만원 상당

광고해드립니다

FOLLOW ME

SNS를 통해
대우건설의 오늘을
만나보세요

대우건설



인스타그램 ‘대우건설인’

www.instagram.com/daewoo_enc
대우건설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을까?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사보 <대우건설인>을 카드뉴스로 쉽게 읽어볼 수 있다.



페이스북 ‘정대우씨 이야기’

www.facebook.com/JungdaewoocStory
정대우 과장이 전해주는 대우건설의 총망라 소식. 대우건설의 최신 뉴스부터 푸르지오 이야기, 틈틈이 열리는 이벤트 등으로 다양하다. 대우건설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푸르지오



인스타그램 ‘PRUGIO’

www.instagram.com/prugiolife
푸르지오의 실제 모습은 물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한 순간을 엿볼 수 있다.



유튜브 ‘푸르지오 PRUGIO LIFE’

www.youtube.com/user/prugiolife
공인중개사와 세무사 등이 직접 출현해 아파트 청약, 부동산 세금 등을 설명하거나 새로 완공된 푸르지오의 내부공간과 인테리어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 더욱 유익하다.



페이스북 ‘푸르지오’

www.facebook.com/prugio
푸르지오의 새 소식과 유튜브 소식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경품이 푸짐한 이벤트가 상시 열리고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